

# 기후위기 대응·지역 특색 결합 AI 성과 확산 ‘앞장’

광주과학기술관·1.5°C포럼·기후에너지진흥원·전남대  
관련 인재양성·미래모빌리티 실증 협력 등 추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과학관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ESG 경영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인공 지능(AI) 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다년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광주과학관을 비롯해 1.5°C포럼(회장 최용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원장 윤제정),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학장·원장 나명환)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과제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의 지역적 특색을 결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캠페인 등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미래모빌리티 및 AI 관련 시제품 등 AI 관련 실증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호남권 지역민 AI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협력 운영, 기타 AI 인재양성과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민기후정책 싱크탱크인 1.5°C포럼의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대학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연구성과와 진흥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국립광주과학관의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기후과학을 일상 속 가치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구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각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힘을 합쳐 ESG 경영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지역사회 ESG 경영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5개 기관 및 대학이 참여하는 다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앞줄 오른쪽부터)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윤제정 원장, 국립광주과학관 이정구 관장, 1.5°C포럼 최용국 회장,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방도연 부원장.

실천과 지역 AI 산업의 가치를 알리는 중점사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C포럼 최용국 회장은 “국민기후정책 싱크탱크로서 제안해온 다양

한 정책 비전들이 국립광주과학관이라는 훌륭한 장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 과학문화 콘텐츠로 피어나길 기대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민의 AI 문해력 향상을 위해 협약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여수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2년 연속 최고

UN 기후주간 성공개최·COP33 유치 추진 동력 확보

여수시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이클레이(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회 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우수도시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수상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은 전 세계 140개국 1만380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 협약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플랫폼이다.

시는 2021년 협약에 가입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을 2년 연속으로 획득하

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에너지 분야 등 3대 분야 9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 6개 항목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기후위기 대응 선도시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수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은 여수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여수시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이클레이(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회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우수도시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수상했다.

전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성과와 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조광문 목포대 교수

## 디지털 교육활성화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조광문 국립목포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가 최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5 디지털새싹 성과공유회’에서 디지털 교육 활성화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우수한 성과 창출, 학교 현장 밀착 지원에 앞장선 유공자에게 수여되며, 조광문 교수는 디지털 교육 확산과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교육 사업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의 디지털 소양과 SW·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목포대는 2022년부터 연속으로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리터러시, AI, 데이터 소양, SW융합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조광문 교수는 국립목포대 디지털AI혁신연구소를 기반으로 교·강사, 현장 전문가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AI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 왔다.

특히 다문화 학생, 도서벽지 학생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천



명의 학생에게 무상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목포대는 지역 초·중·고를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 사업 운영과 현장 중심 지원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 내 정규·비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광문 교수는 “이번 표창은 현장에서 함께 고생한 교사, 강사, 관계자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과 학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디지털 교육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공교육 디지털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나주시가 최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 ‘천년이음 나주배’ 프리미엄 시식·관촉 행사

광주시청 등 우수 농특산물 홍보…쌀·멜론도 호응

나주시가 프리미엄 농특산물 시식 행사를 열고, 대표 브랜드인 천년이음 나주배를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의 관촉과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천년이음 나주배 시식과 함께 배즙, 쌀(왕건이 탐낸 쌀), 세지 멜론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지역 간 상생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근 시군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나주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참여해 광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특산물을 선보였다.

특히 ‘천년이음 나주배’는 설 명절 선물을 응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나주시 대표 브랜드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나주시장 품질보증을 받은 고품질 배다.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 배본연의 단맛과 풍부한 과즙을 자랑하며 행사 현장에서 시민과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서울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나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나주배와 배즙, 쌀 등 농특산물 관촉과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관심과 호평을 받기도 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최근 지역 태권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DS DREAM START 태권도 멘토링’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동신대 태권도학과, 꿈나무 멘토링 ‘호평’

전남지역 14개 태권도장 수련생 142명·지도자 27명 참여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학과장 김철민)는 최근 지역 태권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DS DREAM START 태권도 멘토링’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신대 체육관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남지역 14개 태권도장 수련생 142명과 지도자 27명 등 총 169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동작으로 구성됐으며, 동신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진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태권도 기초 동작부터 품새 수련까지 단계별 특별 지도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동신대 태권도학과는 현장 중심 교육 철학과 실천적 지도역량을 지역사회와 직접 공유했으며, 대학의 전문성이 지역 태권도장의 교육 현장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 기반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김철민 태권도학과장은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은 중요한 책무”며 “이번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담당한 정명규 교수는 “지역 아이들이 태권도 수련에 진지하게 임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을 통해 전남의 태권도 인재 육성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태권도학과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태권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광주 동구 지산2동 마을사랑채는 최근 어르신들을 위해 이색 디저트 ‘두바이 쫄면꾸기(두쫄꾸)’를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

## 광주 지산2동 마을사랑채, 이색 디저트 나눔

광주 동구 지산2동 마을사랑채는 최근 어르신들을 위해 이색 디저트 ‘두바이 쫄면꾸기(두쫄꾸)’를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

마을사랑채는 최근 열린 ‘수요밥상’ 프로그램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방문한 어르신 200여명에게 설 맛이 특별한 간식으로 ‘두쫄꾸’를 제공했다.

마을사랑채 봉사자들이 마을사랑채 운

영협의체 위원, 희망나눔실천단원, 지산2동 행복복지센터 직원이 정성을 담아 두쫄꾸를 직접 만들었다.

신영순 지산2동장은 “어르신들께서 한하게 웃으시며 디저트를 드시는 모습을 보니 봉사자들의 마음도 더 따뜻해졌다”며 “맛있는 식사와 두쫄꾸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